1.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③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④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⑤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정답: ③

* 비파형동검이 사용되던 청동기 시대상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고조선의 세력범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로 계급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 무덤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①, ⑤ 빗살무늬토기를 주로 사용한 신석인들은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② 구석기인들은 이동에 편리한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④ 구석기, 신석기들은 생산력이 낮아 협업이 불가피하여 평등한 공동체 구조였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장사를 치를 때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 장(丈)이며 한 쪽을 열어 놓아 입구로 만든다. 죽은 자는 모두 가매장을 하는데 형체만 겨우 덮어 두었다가 피부와 살이 다 썩으면 곧바로 뼈를 거두어 곽 안에 둔다. 온 가족을 모두 한 곽에 넣으며,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나무를 깎는데 죽은 사람의 수와 같다.

–「삼국지」 동이전 –

(나)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수혈이라 부른다. 10월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모여 수신(隧神)을 맞아 나라의 동쪽 강가로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자리에 모셔둔다. ……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는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삼국지」 동이전 –

① (가)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② (가)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나) –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④ (나) –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⑤ (가), (나)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과 왜에 수출하였다.

정답: ④

* 초기국가 옥저와 고구려

(가) **옥저**: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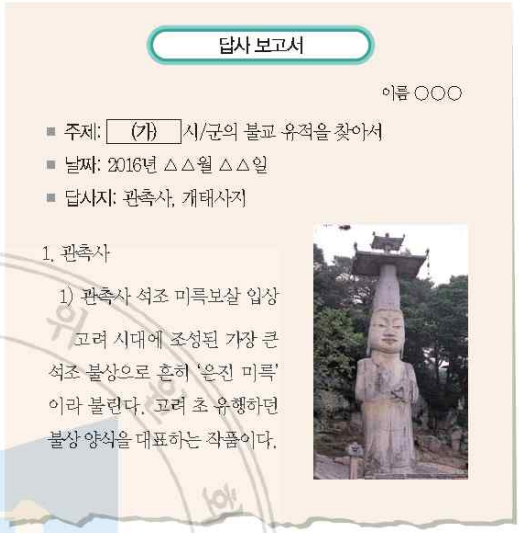
(나) **고구려**: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①, ⑤ 삼한은 다른 국가들이 제정일치(군장과 제사장이 일치) 국가 있는데 비해 제정분리의 국가였다. 이는 신성 구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삼한 중 변한은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 및 왜에 수출까지 하였다.

② 부여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가(加)들이 있어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③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3.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이름 ○○○

- 주제: (가) 시/군의 불교 유적을 찾아서
- 날짜: 2016년 △△월 △△일
- 답사지: 관촉사, 개태사지

1. 관촉사

1)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 시대에 조성된 가장 큰 석조 불상으로 흔히 '은진 미륵'이라 불린다. 고려 초 유행하던 불상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②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③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④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다.
⑤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건설되었다.

정답: ③

* 논산 지역의 역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보물 218호): 충남 논산 소재.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 유난히 머리 크고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일명 은진미륵

① 중종 때에 오늘날 경북 영주에 속한 풍기 군수 주세붕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였다(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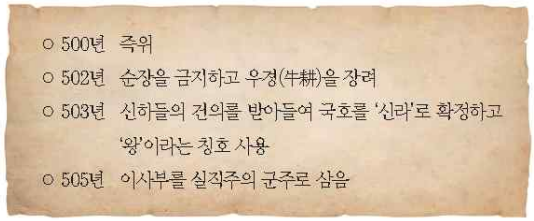
②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들과 함께 조선국권회복단(1915.1)을 이끌던 박상진은 풍기 지역의 채기중이 이끄는 (대한)광복단(1913)을 통합하여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1915.7).

③ 김유신과 소정방이 이끈 나당연합군에 맞서 백제 장수 계백은 처자를 죽이고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충남 논산)에서 결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 전사하며 사비성이 함락되며 백제는 멸망되었다(660).

④ 고려 말 최무선(1325~1395)이 끈질긴 노력을 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자, 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충남 장항과 전북 군산 사이)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에 힘입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개성에 공단 건설이 추진되어(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가동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4. 다음 연보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②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인재를 등용하고자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④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정답: ④

* 신라 지증왕(500~514)의 업적

신라는 지증왕(500~514) 대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503).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주.군제 실시, 소경 설치),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키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사회.경제적으로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실시하였으며(502),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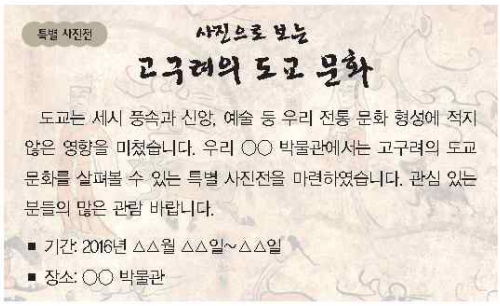
①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527)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었다.

② 신문왕(681~692)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③ 신라는 원성왕(785~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상.중.하.특품)를 시행하였고(788), 신분제로 관직 승진의 상한 등 여러 사회적 규제가 있는 골품제를 엄격히 실시하였다.

⑤ 선덕여왕(632~647) 때에 자장 율사의 건의로(643)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645).

5.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④

* 고구려의 도교 문화 유산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백제 금동 대향로

③ 백제 산수무늬 벽돌

④ 고구려 '사신도' 중 현무도(강서대묘)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고구려가 침입해 와 한성을 포위하였다. 개로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방어하며, 태자 문주를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문주가 신라 병력 1만 명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한성이 파괴되고 개로왕이 사망하여, 마침내 문주왕이 즉위하였다. ……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삼국사기」–

(나)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①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② 무왕이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③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④ 견훤이 금성을 습격해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⑤ 복신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정답: ③

* 백제 웅진 시기(475~538)의 역사적 사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려 개로왕(455~475) 때에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고(결혼동맹, 493),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① 백제 최전성기인 근초고왕(346-375) 때에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375).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②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600~641)이 익산에 미륵사(601)를 창건하였다.

④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927년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다.

⑤ 백제 멸망(660) 직후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663).

7. 다음 상황 이후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수의 침략군을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②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③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④ 평양성에서 나·당 연합군에 항전하였다.
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④

* 안시성 싸움 이후의 고구려

수가 망한(618) 뒤에 중국을 통일한 당은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꾀하였으나 당 태종이 즉위한 뒤부터는 두 나라의 관계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당 태종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한편, 고구려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고구려는 요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이어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를 보장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막리지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은 강경한 대외 정책을 써서 신라와 당에 맞섰다. 백제와 힘을 합해 신라에 대한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당의 간섭을 단호히 물리쳤다.

이에 당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삼아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당 태종은 육군과 수군으로 양쪽에서 공격해 왔다.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요충지인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로 함락한 후,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은 조그마한 산성이었지만 서쪽 변경의 중요한 요새였다. 안시성은 당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하루에도 6, 7회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지막 3일 동안 총공격을 받았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안시성에서는 성주를 비롯한 모두가 굳세게 저항하여 끝내 당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킬 수 있었다(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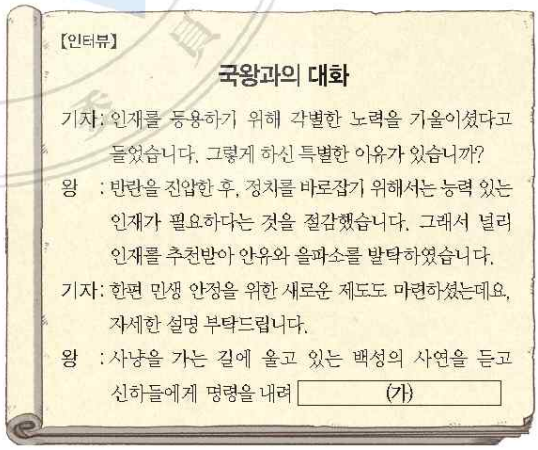
이후 당은 신라와 나당동맹(648)을 결성하고 백제를 멸망(660)시킨 후,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군은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방어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데다가,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죽자(665) 지도층 안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졌다. 이 기회를 틈타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① 612년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을지문덕의 계략에 의하여 살수에서 대패하였다.

② 고구려 미천왕(300~331)은 낙랑군을 축출하며(313) 이 땅에 한의 군현을 모두 몰아내었다.

③ 고구려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8. 다음 가상 인터뷰의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는 혜민국을 설치하였습니다.
②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호패법을 시행하였습니다.
④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습니다.

정답: ②

* 춘대추납 구휼제도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이는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여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고,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고려의 사회 시책 중에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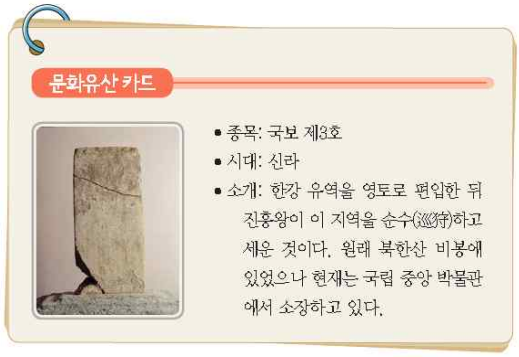
① 고려와 조선은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③ 조선은 태종 때에 호패법(1402)을 실시하였는데, 호패란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이다. 호적의 누락을 보완하고 요역과 군역의 징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④ 고려 광종(949~975)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환원시키는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⑤ 고려는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9.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신라 왕을 매금왕이라 표현한 의미를 찾아본다.
② 신라의 수리 관개 시설 축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③ 비문의 내용을 검토한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을 살펴본다.
④ 고대 사회의 재산 소유와 상속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⑤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구려가 왜를 격퇴하는 과정을 검색한다.

정답: ③

*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국보 3호): 신라 진흥왕(540~576)이 555년 또는 568년 이후에 세운 4개의 순수.척경비 중 하나. 한강 유역을 영토로 편입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 조선 시대에 줄곧 무학대사비로 알려졌으나, '금석과안록'을 저술한 김정희(1786~1856)에 의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원래는 북한산 비봉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다.

① **중원 고구려비**(481): 장수왕이 신라의 왕을 '동이 매금(東夷寐錦)'이라고 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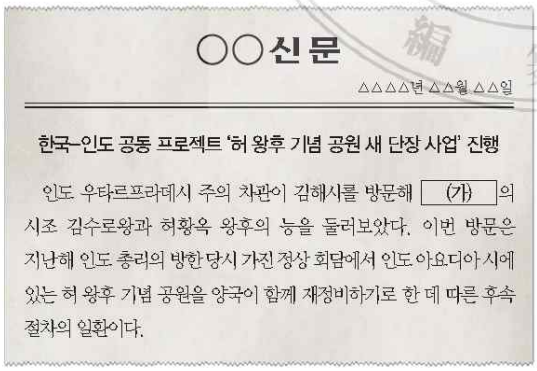
② **영천 청제비**(536, 798): 영천 청못의 수리 관개 시설 축조와 중수(重修)의 내용

④ **영일 냉수리비**(503): 영일 지방의 재산 상속 분쟁을 판결해주는 내용

*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또는 441년): 현존 최고(最古) 비석, 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 내용 기재

⑤ **광개토대왕릉비**: 만주 길림 집안 소재.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414년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고구려의 개국 설화 (주몽 설화 -> 천손 의식)
2부: 광개토 대왕의 군사적 공적 (영토의 확장과 특히 400년 신라를 침공한 왜군 격퇴 사실 기재)
3부: 능묘를 지키기 위한 연호(烟戶: 수묘인) 300호의 배치 상황 등

10.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년 △△월 △△일

한국-인도 공동 프로젝트 '허 왕후 기념 공원 새 단장 사업' 진행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차관이 김해시를 방문해 (가)의 시조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인도 총리의 방한 당시 가진 정상 회담에서 인도 아요디아시에 있는 허 왕후 기념 공원을 양국이 함께 재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의 일환이다.

① 지방을 9주 5소경 체제로 다스렸다.
②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③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를 두었다.
④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⑤ 일부 왕족이 멸망 후 신라의 진골로 편입되었다.

정답: ⑤

* 금관 가야의 역사

-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의 시작은 신라 때인 42년(유리왕 19) 구지봉(龜旨峰)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김수로왕이 탄생하였고, 구간(九干)과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고 하며, 수로왕의 부인은 인도 아유타국 출신의 허황옥이라 한다.

- 가야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야 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

그러나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과 그 자손(김유신으로 이어짐)들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되었고, 후일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통일 후 신라는 지방을 9주 5소경 체제로 다스렸다.

② ④ 고구려는 장수왕대부터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귀족회의인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③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현재

11.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9산 선문 중 하나인 실상산문이 개창되었다.
②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③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④ 중국 화북 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성리학이 전래되었다.

정답: ①

* 신라 하대의 모습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혜공왕은 살해를 당하였다(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로써 통일 직후 지속되던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이 끊어졌다(780년 선덕왕 즉위: 내물왕계).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사상적으로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심성도야와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선종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선종 승려들은 지방 호족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지방 호족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는데, 도의의 가지산문, 홍척의 실상산문 9산 선문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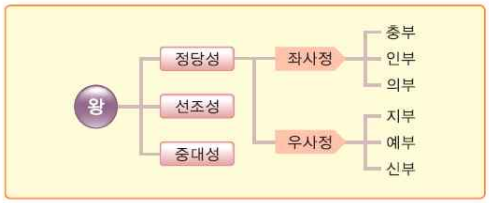
또한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호족들과 연계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② 고려 전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③ 통일 직후 신라 신문왕 때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④, ⑤ 고려 후기 충정왕 때에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1349)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밭농사 위주의 화북 농법을 위주여서 논농사 위주의 우리 실정에 다소 맞지 않았다. 또한 충렬왕 때에 안향에 의해 원으로부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성리학이 처음 수용되었다(1290).

12. 다음과 같은 중앙 관제를 갖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③ 주자감을 두어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외사정을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찰하였다.
⑤ 청해진을 통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정답: ③

* 3성 6부를 채택한 발해의 통치 체제

발해의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정당.중대.선조)과 6부(충.인.의.지.예.신)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이 외에도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중정대, 서적 관리를 맡은 문적원, 중앙의 최고 유교 교육기관인 주자감 등이 있었다.

발해의 지방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에는 15부(도독)를 두었으며, 그 아래에 주(자사)와 현(현승)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발해의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고, 지방행정 조직에 따라 지방군을 편성하여 지방관이 지휘하게 하였다. 국경의 요충지에는 따로 독립된 부대를 두어 방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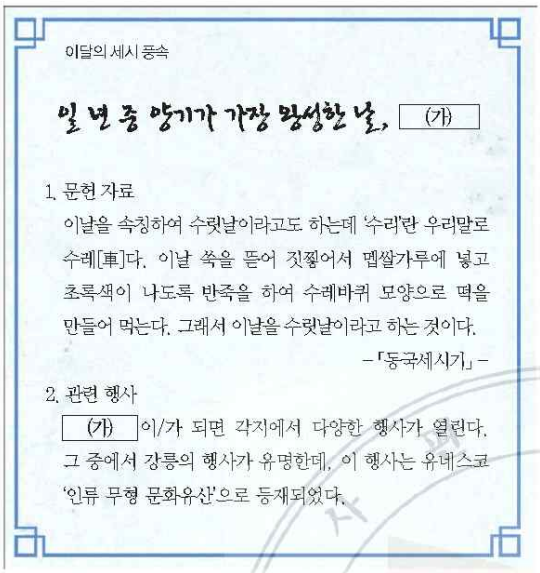
① 발해는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② 통일신라의 중앙군의 핵심은 9서당이었다. 서당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지방군으로는 10정을 두었는데, 9주에 1 정씩 배치하고,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④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⑤ 9세기 초 통일신라기에 '바다의 왕자'로 세력을 떨쳤던 장보고(?~846)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외 무역에 종사하여 이름을 크게 떨쳤다.

13.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②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
③ 들판에 쥐불을 놓으며 풍년을 기원했다.
④ 그네뛰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다.
⑤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정답: ③

* 단오날의 세시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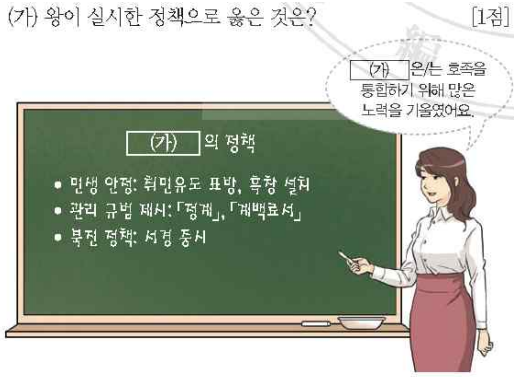
음력 5월 5일. 삼한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옛날부터 5월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접어드는 달로 나쁜 병이 유행하기 쉽고, 여러 가지 액(厄)을 제거해야 하는 나쁜 달로 보아, 예방조치로서 생겨난 풍습이다.

남자들은 씨름, 태껸, 석전(石戰), 활쏘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네 타기, 수리취떡 먹기, 앵두로 화채 만들어 먹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의 풍습이 있다. 특히 추천(鞦韆)이라 불리우는 그네타기는 오랜 봉건유습에서 내려온 삼간내외법으로 1년 내내 집안에서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날 하루만이라도 밖에 나와 해방감을 맛보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③ 정월 대보름날(음력 1.15)에 횃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의 두렁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는 '쥐불놀이'를 한다.

14.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도병마사를 설치하여 주요 문제를 논의하였다.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④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복색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①

* 고려 태조의 정책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고(940),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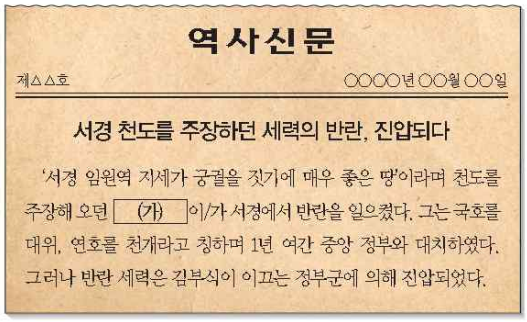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② 재추 합의기구인 도병마사는 근원이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병마사 출현한 성종 8년(989) 이후에 나타난 기구이다.

③, ⑤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고, 위계질서를 세우고자 백관의 4색 공복을 제정하였다.

④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1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신문

제△△호 ○○○○년 ○○월 ○○일

서경 천도를 주장하던 세력의 반란, 진압되다

'서경 임원역 지세가 궁궐을 짓기에 매우 좋은 땅'이라며 천도를 주장해 오던 (가) 이/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고 칭하며 1년 여간 중앙 정부와 대치하였다. 그러나 반란 세력은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①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
② 봉사 10조를 국왕에게 올렸다.
③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④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⑤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시도하였다.

정답: ④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개경파)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서경파)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정지상,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대화세(大花勢)의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하며,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사대적 유교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계승 이념(개경파) 간의 갈등 등이 얽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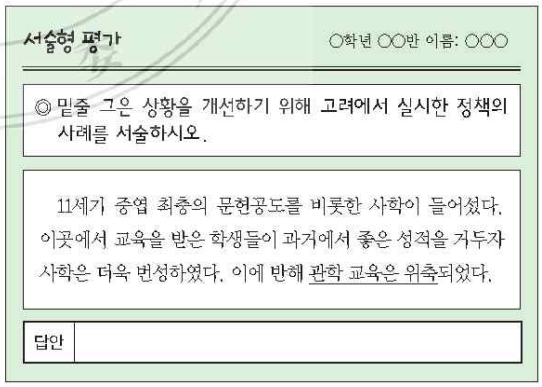
① 정도전(1342~1398)은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다.

② 최충헌은 전임 집권자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자(1196~1219 집권),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무신정변(1170) 이후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과 서경 유수 조위총(1174)은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거병했으나 실패하였다.

⑤ 조선 중종 때에 조광조(1482~1519)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반정 공신 중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도교적 행사인 초제 주관 기관)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16.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중등 교육 기관으로 4부 학당을 설립하였다.
②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두어 운영하였다.
③ 경사 6학을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정비하였다.
④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⑤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정답: ①

* 고려의 관학 진흥책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인종 때에는 경사(經史)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기에는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충렬왕 때에(1308년, 충선왕 재즉위년)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공민왕은 1362년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① 조선 태종 때에 한양 재천도(1405) 후, 중등 교육기관으로 5부학당 설치(->4부학당)을 설치하였다(1411).

17.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이로 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책 머리에 기이(紀異)편을 싣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나) 그 요점만을 추려 시(詩)로 읊는다면 살펴보시기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 운(韻)을 넣어 읊조려서 좋은 것은 본보기로 삼고 나쁜 것은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 일에 따라 비평을 하였습니다.
>
> ⋮
>
> 요동에 별개의 천지가 있으니
>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도다.

① (가) – 시정기, 사초 등을 토대로 편찬되었다.
② (가) –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③ (나)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④ (나) – 조선 왕조의 역사가 기사본말체로 서술되었다.
⑤ (가), (나) –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정답: ⑤

*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이적(神異的) 사실을 많이 담고 있어 왕력과 함께 기이편을 책의 권두에 두며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인 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써서 국왕께 찬진한 '제왕운기'(1287)는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①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② 고려 말기인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의 게송·법어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인 '직지심체요절'은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③ 역사서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④ 조선 후기 이긍익(1736~1806)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기사본말체의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다.

18. 밑줄 그은 '여러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격하된 관제를 복구하였다.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③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④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였다.
⑤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혁파하였다.

정답: ③

* 공민왕의 개혁정책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한 공민왕(1351~1374)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이색을 책임자로 하여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박상충,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③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은 경기 지역에 한하여 관료들에게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로서, 이후 조선의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이 되었다.

19.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서희의 외교 교섭 결과에 대해 조사한다.
② 공민왕이 수복한 쌍성총관부의 위치를 파악한다.
③ 윤관의 여진 정벌과 관련된 척경입비도를 검색한다.
④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지역을 살펴본다.
⑤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지역을 확인한다.

정답: ①

*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입(성종 12년, 993) 때에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자, 고려 조정은 할지론(땔을 때어줌) 대두되었다. 구러나 서희는 이에 반대하고 담판에 나아가,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내세우고 친송관계를 끊고 거란과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흥화진(의주), 용주(용천), 통주(선주), 철주(철산), 귀주(귀성), 곽주(곽산) 등의 강동 6주를 획득하여 압록강 하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994).

그 후 전연의 맹약(1004)으로 거란과 송의 강화 조약이 성립되었음에도 고려가 송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은 고려에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② 쌍성총관부는 철령 이북의 땅으로 오늘날의 함남 평야지대이다.

③ 척경입비도는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9성(함주, 영주, 웅주, 복주, 길주, 공험진, 숭녕진, 통태진, 진양진)과 관련되었으며 이곳은 오늘날 함경도 일대이다.

④ 국예가 국호를 고려(후고구려)에서 마진(904), 태봉(911)으로 바꾸고 천도한 지역은 철원 지역이다.

⑤ 몽골의 2차 침입 때에 김윤후가 몽골의 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한 곳은 처인(오늘날 용인) 지역이다

2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제창하였다.
② 법화 신앙을 중심으로 백련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③ 귀법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상융회를 강조하였다.
④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혜쌍수를 내세웠다.
⑤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정답: ⑤

* 교선통합을 추진한 의천(1055~1101)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원효의 통합 불교 사상(일심, 화쟁)을 계승하여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일찍이 송나라에 유학하여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하였고, 당대의 중국(정원법사)과 인도(천길상)의 고승과 교류하였으며 불교 서적 3000여 권을 가지고 귀국하였며, 이후에도 요, 송, 일본 등에서도 불교 서적 4,000여 권과 국내의 고서를 모았다.

이후 흥왕사(개경)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개경)를 창건하여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교단 통합 운동은 많은 승려가 모이는 등 새로운 교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의천이 죽은 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되었다.

또한 의천은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고려는 물론이고 송, 요,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흔히들 속장경이라 함)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①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의 제자인 혜심(1178~1234)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②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③ 광종 때에 활약한 균여(923~973)는 귀법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융합시키려는 성상융회(性相融會)를 강조하였다.

④ 지눌(1158~1210)은 선(禪)과 교(敎)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고,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21. (가), (나)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나)

① (가) –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하였다.
② (가) –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나) –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④ (나) – 호장, 부호장을 상층부로 하는 향리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
⑤ (가), (나) – 관찰사를 파견하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정답: ①

*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

(가) **고려**: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12목 설치와 호장.부호장의 향리제도 마련)). 현종 때에 전국을 5도(서해.교주.양광.경상.전라)와 양계(동.북),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예종 때 완성).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고려에서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주군·주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나) **조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지방관은 임기제(관찰사 1년, 수령 5년)와 상피제(출신지에 부임 못함)를 적용하여 통제하였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병마.수군 절도사 겸임),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② 통일 후 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였다

22.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수덕사 대웅전


ㄴ. 해인사 장경판전


ㄷ. 법주사 팔상전


ㄹ. 원각사지 십층 석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15세기(조선 전기) 건축 문화유산

조선 초기에는 사원 위주의 고려 건축과는 달리,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등이 건축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건물은 건물주의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그 목적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불교는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활발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비호를 받은 건축물 중 띄어난 것이 적지 않다. 무위사 극락전(1476년 이전)은 검박하고 단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1488)은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하고 있다. 세조 때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1467)은 이 시기 석탑의 대표작이다.

㉠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1363년 중수, 13세기 초로 추정)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1376)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1308)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조선 후기에 불교가 신앙의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건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부농, 상공업 계층의 지원 아래 많은 사원이 세워졌고,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했다.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1635), 화엄사 각황전(1702), 법주사 팔상전(1605)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23.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이종무를 삼군도체찰사로 명하여, 중군을 거느리게 하였다. …… 이종무로 하여금 경상 · 전라 · 충청의 3도 병선 2백여 척과 하번 갑사, 별패, 시위패 및 수성군영에 속해 있는 재인과 화척 · 한량인민 · 향리 · 일수양반 중에서 배 타는 데 능숙한 장정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왜구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6월 8일에 각 도의 병선들이 함께 견내량에 모여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 이종무의 대마도(쓰시마섬) 정벌(1419)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였다. 특히,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에 장착하는 등 왜구의 격퇴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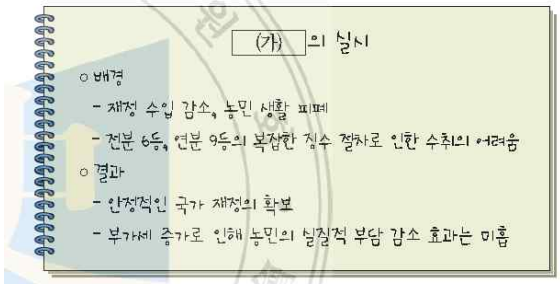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세종 대에는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상왕 태종의 주도 하에 이종무를 시키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또한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견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그러나 삼포왜란(1510), 사량진 왜변(1544) 등으로 폐쇄와 재개를 거듭하며 부산포를 제외하고 폐지하다가, 임진왜란으로 국교 단절이 되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가 등장하여 10여년간의 끈길긴 외교재개 요청 끝에 1607년 국교가 재개되고(이후 통신사 파견),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9년 두무포->1678년 초량진)

2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였다.
②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③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수취하였다.
④ 공인을 통해 각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⑤ 풍흉에 관계없이 대부분 농지에서 1결당 4~6두의 전세를 거두었다.

정답: ⑤

* 조선 후기 전세 개혁 영정법

양 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전국의 토지 결수는 150만 결이었는데, 직후에는 30여만 결로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개간을 권장하면서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도 서둘렀다. 이것은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 내어 전세의 수입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정책으로는 농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농민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분 9등법(풍.흉년에 따라 1결당 20~4두)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전세를 납부할 때에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인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 훨씬 많아 때로는 전세액의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①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여 과전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고 수신전, 휼양전 등을 폐지하였다.

②, ④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공납의 전세화)은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광해군 때(1608)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10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관수품은 공인을 통해 조달되었고, 이를 통해 상품화폐경제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되었다.

③ 영조 때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1750)이 시행되어 농민은 1년에 군포를 기존의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25. (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김효원이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을 때, 심의겸이 이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이조 전랑으로 천거되자, 이번에는 김효원이 나서 외척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양쪽으로 편이 갈라져 서로 배척하였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①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반정으로 집권하였다.
② 이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④ 선조 때 왕세자 책봉 문제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⑤ 효종비의 사망 이후 전개된 예송의 결과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답: ⑤

* 서인에 대하여

1567년 선조가 즉위 후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되었다(1575).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한편,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연루된 동인이 서인 정철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으나(호남 동인 몰락), 곧 정철을 광해군 세자 건저 문제로 탄핵시켜 서인 정권을 몰락시켰다(1591). 이 때 서인의 처벌 수위를 놓고서 이황의 학파는 남인(온건론)을 형성하고 서경덕과 조식의 학파는 북인(급진.강경론)으로 분화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그를 지지하는 정인홍, 이이첨의 대북 북인 정권은 서인과 남인 및 소북 북인도 배제하며,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623).

⑤ 현종(1659~1674)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國喪)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따라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차자(次子)의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1년설(기년설)을 갑인예송 때에는 9개월(대공)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6경 고학(古學)에 기반을 두어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장자(長子)의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3년설을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서인과 대립하였다.

기해예송(1659, 효종 관련 국상)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예송(1674, 효종비 관련 국상)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26. 다음 대화 장면 속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②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③ 기유약조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④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⑤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 임꺽정의 난이 있던 명종 대(1545~1567)

명종(1545~1567)은 이복형인 인종(1544~1545)이 1년 만에 죽자 어린 나이(12세)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의 외척인 대윤(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소윤(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림이 연루되어 큰 희생이 있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 양종 부활(1551) 및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되었다(1552).

그러나 집권 훈척 세력의 권세와 탐욕이 극도에 달하며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해택지(海澤地)나 산록(山麓)을 개간하여 땅을 넓혔다. 특히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며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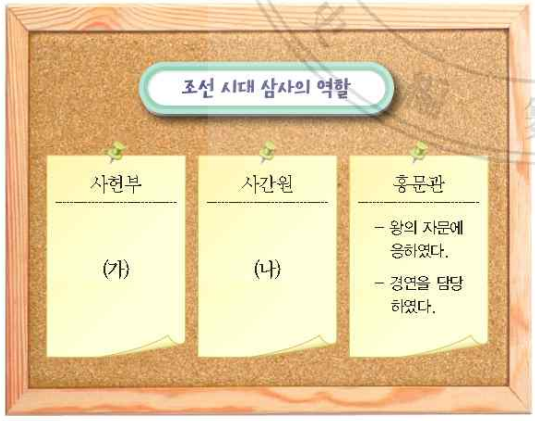
① 조선 세종 때에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북서 4군(1443, 최윤덕)과 동북 6진(1449, 김종서)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③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9년 두모포->1678년 초량진)

④ 안동 김씨 세도정치는 순조(1800~1834)와 철종(1849~1863) 대에 있었다.

⑤ 숙종 대(1674~1720)의 인현왕후의 복위와 장희빈의 강등과 관련있는 갑술환국(1694)을 통해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노론,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27.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가) –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② (가) – 왕명 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다.
③ (나) –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④ (나) – 재신과 추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였다.
⑤ (가), (나) – 왕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시대의 언론 삼사

조선 시대의 언론 기관인 **사헌부**(주로 백관 감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언,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홍문관**(집현전을 계승,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라 하여 대간을 이루고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는데, 서경이란 5품 이하 관료에 대한 임면과 법령 개폐시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간쟁은 왕께 충언(간언)을 하는 것이고, 봉박은 국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으로 인정되었다.

즉,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① 고려 시대의 삼사가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② 고려의 중추원에서 추밀(2품 이상)은 군사기밀을 승선(3품 이하)은 왕명출납을 담당하였다.

③ 조선의 춘추관이 실록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④ 고려의 재신(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과 추밀(중추원의 2품 이상)로 구성된 식목도감이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였다.

2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청과의 후시 무역을 주도하였다.
②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③ 주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하였다.
④ 포구에서의 중개 · 금융 · 숙박업에 주력하였다.
⑤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⑤

* 시전상인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운종가)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통공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조청수륙무역장정(1882)의 체결로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 중앙 총상회(1898.9) 등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① 의주의 만상은 대청 인삼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② 개성의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③ 동래의 내상은 왜관에서 일본 상인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강경, 원산 등의 포구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며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29. 밑줄 그은 '이 법전'을 편찬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②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③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④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⑤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정답: ①

* 대전통편을 편찬한 정조의 업적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1776~1800)도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즉위하자 곧 규장각(1776)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로 삼았고,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법전으로는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정조는 정국 운영을 군주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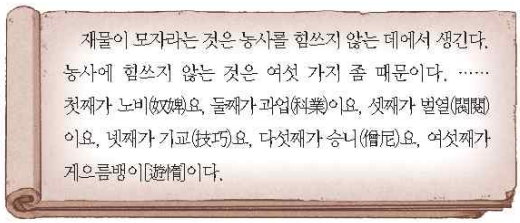
특히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②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③, ⑤ 영조(1724~1776)는 탕평책의 상징적인 조치로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였고(1742),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1770)를 편찬하여 문물을 하였다.

④ 철종(1849~1863) 때의 임술농민봉기 당시 진주민란의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30.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전론에서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제안하였다.
②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하였다.
③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하였다.
④ 곽우록에서 자영농 몰락을 막기 위해 영업전 설정을 주장하였다.
⑤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정답: ④

* 6좀을 비판한 성호 이익(1681~1763)

조선 후기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고(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등), 이중환,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백과 사전류의 저서인 <성호사설>의 곽우록에서 한전론(限田論: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좀: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① 중농적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1762~1836)은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전론'에서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여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후 각 여(閭)단위로 여장이 지휘 하에 농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과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②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③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에서 관리, 선비, 농민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여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⑤ 중상적(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 다음 상소가 올려진 직접적 계기로 옳은 것은? [2점]

>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들이니 그 사이에 누가 더하고 덜하다는 차이를 두기 어렵습니다.

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② 조 · 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과 충돌하였다.
④ 영종도에 일본군이 상륙하여 약탈을 저질렀다.
⑤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정답: ⑤

* 조선책략과 영남만인소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에 신뢰를 갖고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① 강화도 조약1876.2의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을 통해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통상을 거부당한 미 상선 제너럴셔먼호의 성원들이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만행을 저지르다 평양의 관민들에 의해 불타버린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8)은, 후일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는 신미양요(1871.6)의 원인이 되었다.

④ 일본은 운요호를 조선에 보내어 영종도에 상륙시켜 약탈케 하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32.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황사영 백서 사건(1801)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광해군 때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 불교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고, 유몽인은 <어유야담>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 불교, 도교와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이벽, 권철신, 정약용의 형제들)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1784)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전북 진산 윤지충의 모친 신주 소각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신해박해(1791) 때에는 윤지충,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국왕인 정조와 남인 재상 체제공의 경우 정학을 강화시키면 사학은 자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에서 온건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대책이나 사상 통제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노론 벽파가 집권하며 반대파인 시파 남인 계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1801).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흑산도, 자산어보 저술), 정약용(강진, 수많은 실학서 저술) 등이 유배를 당하는 등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특히 황사영 백서 사건(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청의 베이징 주교에게 조선에 군대를 보내 도와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천주교인들은 더더욱 탄압을 받게 되었다.

33. 밑줄 그은 ㉠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ㄱ.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ㄴ. 어재연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되었다.
ㄷ. 외규장각의 의궤가 국외로 약탈되었다.
ㄹ.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근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34.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②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③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④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⑤ 전권대신 민영익 및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답: ⑤

* 대미 사절단 보빙사(1883)

개항(1876, 강화도 조약) 직후 그 후속 조치로 김기수(1876)와 김홍집(1880, 귀국 때 조선책략 갖고옴)를 일본에 수신사(공식 외교 사절)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개화 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고,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 기구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朝士) 시찰단을 파견하였다(1881).

조사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이 시찰단은 당시 개화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어 일본 정부 각 기관의 사무를 조사하고 산업·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항에 대비하여 세관 사무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귀국 후 일행의 대부분은 통리기무아문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일부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어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익혔다(유길준, 윤치호).

통리기무아문은 영선사 김윤식을 청나라에 보냈다. 그는 38명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톈진 기기국에 가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1881). 하지만 학생들의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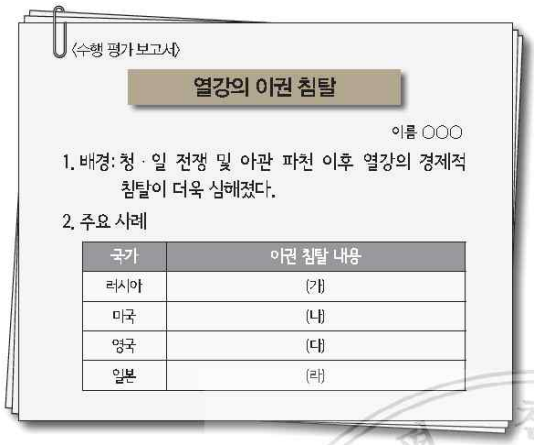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① 세종 때(1443)에 통신사(通信使)의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여 성종 때(1471)에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일본국과 유구국(琉球國)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② 아관 파천(1896.2) 후 1년 만에 환궁한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35.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수행 평가 보고서〉

열강의 이권 침탈

이름 ○○○

1. 배경: 청 · 일 전쟁 및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2. 주요 사례

국가	이권 침탈 내용
러시아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보 기〉

ㄱ. (가) –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
ㄴ. (나) – 운산 금광 채굴권
ㄷ. (다) – 두만강 유역과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
ㄹ. (라) – 경부선 철도 부설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열강의 이권 침탈

아관파천(1896.2) 직후 정부는 친러 내각을 구성하고 이전에 추진되었던 개혁의 일부를 중단시키는 한편 각종 잡세를 줄이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은 이권침탈을 가속화하였다.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광산, 삼림 등의 자원을 비롯하여 철도, 전차, 전기, 전신 등 교통과 통신 부분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삼림 채벌권(울릉도, 두만강)을 독점하였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경부선)을 독점하였다. 미국은 전기 시설을 독점하고, 운산 등의 금광에서는 한국 전체 금 생산량의 25%나 생산하였다.

㉠ 강화도 조약(1876) 체결 이후 일본이 부산에 전신국을 가설하고 1883년 1월 조선정부와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을 체결하고 이듬해 부산과 나가사키 사이에 해저전선을 개통시키자, 청국도 조선정부에 요구하여 1885년 6월 조선전선조약을 체결하고 한성전보총국을 설치하여 8월에 서울과 인천, 10월에는 서울과 평양·의주에 이르는 전선을 개통하였다.

36. 다음 자료가 반포된 이후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에는 오백 년이 내려왔고 이후에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專制)정치이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하시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정체(自立政體)이니라.
> ⋮
>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하시니라.

①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②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③ 건양 연호를 제정하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④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 ②

* 대한국국제 반포(1899) 이후의 정책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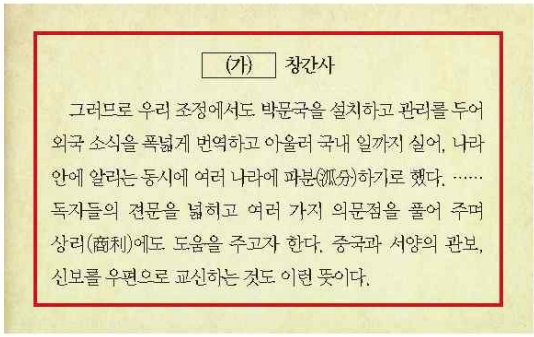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①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때에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③ 을미개혁(1895.7~1896.2) 때에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④, ⑤ 1차 갑오개혁(1894. 7~12)은 군국기무처를 통하여 실시되어 6조를 8아문 체제로 개편하고, 관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37.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창간사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파분(派分)하기로 했다. ……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 주며 상리(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국과 서양의 관보, 신보를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① 의병 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②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었다.
③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④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⑤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⑤

*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개항 이후 개화파는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순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었지만,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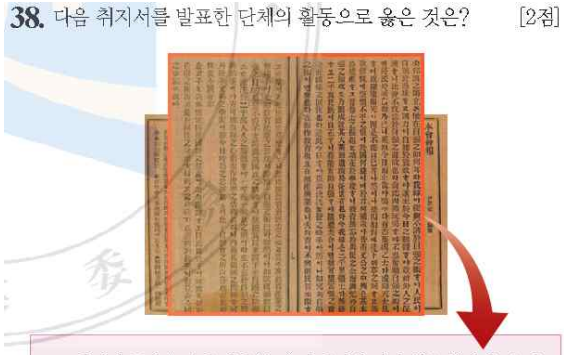
①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창간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항일의병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항일언론이었다.

②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1898~1910)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③ 국채보상운동(1907)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④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1896.4~1899.12)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38.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가 예전부터 자강할 방법을 배우지 않아 인민이 저절로 우매해지고 국력이 쇠퇴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오늘날의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끝내는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는 모두 자강할 방법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완고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강의 방도에 함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끝내는 멸망에 다다를 뿐이니 ……

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③ 가갸날을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④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 회사를 설립하였다.
⑤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 대한자강회

러.일 전쟁(1904~1905)과 을사 조약(1905.11)을 전후로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문화 언론.산업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송수만, 심상진 등이 세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농광회사를 세우며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7).

입헌정치 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 연구회(1905)를 계승하여 윤효정, 장지연 등이 세운 대한 자강회(1906)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② 독립협회는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며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겨있는 헌의 6조(1898.10)를 건의하여 고종이 이를 반영한 관제(1898.11)를 발표하였으나, 동년 12월에 협회가 해산되며 실패하였다.

③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창립된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⑤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활동을 한 신민회(1907~1911)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39.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

울릉 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번 달 4일 진시 즈음에 배 1척이 울릉군 내 도동포에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인 일행이 내려 말하길 "(가)이/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된 까닭으로 시찰차 왔다" 하온 바 ……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잘 받아보았다. (가)이/가 일본의 영토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



참정 대신 박제순

①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곳이다.
②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몽골군에 저항하였다.
③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며 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⑤ 대한 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관할 영토임을 명시하였다.

정답: ⑤

독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 칙령(41호)으로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을사조약 이후인 1906년 5월의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와 참정대신 박제순과의 질의문답 서신에서도 우리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대한제국에 통보치 않음)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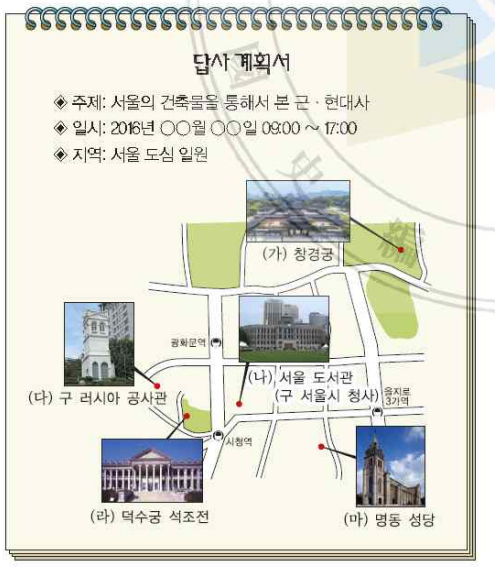
① 하멜 일행이 표류해 도착한 곳은 제주도이다.

②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항몽투쟁을 벌인 곳은 강화도에서 진도이다.

③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고 학파를 이룬 곳은 강화도이다.

④ 러시아가 저탄소를 빌미로 조차하려고 한 곳은 부산 절영도이다.

40.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 –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② (나) –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
③ (다) –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피신하였다.
④ (라) – 제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⑤ (마) – 6월 민주 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하였다.

정답: ②

* 서울의 건축물

(가) **창경궁**: 본래 이름은 수강궁으로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 후 성종 때(1483) 세 대비를 모시기 위하여 새로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었다. 창경궁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장희빈을 처형한 일과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일 등 크고 작은 궁중 비극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일제 시대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이왕가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나) **구 서울시 청사**: 일제 시대에 경성부(지금의 서울시에 해당) 청사로 해방 이후에도 줄곧 서울시청으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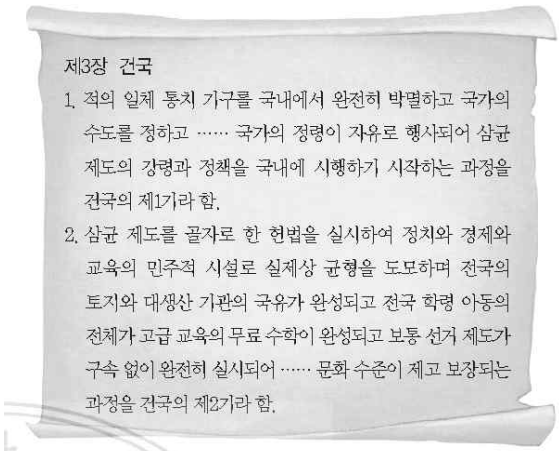
(다) **구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인 사바틴이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 1885~1890년에 걸쳐져 완공되었다. 아관파천(1896)으로 고종이 1년 동안 거처하였다.

(라) **덕수궁 석조전**: 조선의 궁궐이 침전(왕의 침소)과 정전(업무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과 달리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통합된 건물. 기본 설계는 영국인 하딩이, 내부 설계는 영국인 로벨에 의해 지어진 (1900~1910) 근대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건물로서 기둥 윗부분은 이오니아식,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한 서양식 건축기법이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유럽 궁전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이곳에서 19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6.25전쟁 이후인 1954~1973년엔 국립(중앙)박물관, 1973~1986년엔 국립현대미술관, 1992~2004년에는 궁중유물전시관, 2005년 이후에는 국립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 **명동 성당**: 프랑스 신부 고스트가 설계하여 1892년에 시작되어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이다. 고딕 양식(첨탑+스테인드글라스)이다. 원래 이름은 종현 성당이었으나 1945년에 명동 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수배자나 시위대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명동 성당으로 모여들었고,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하는 등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② **조선총독부**: 1926년 경복궁의 일부를 헐어내고 지어진 것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의 청사(중앙청)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김영삼 정권 때에 철거되며 국립중앙박물관 들어섰다(국립중앙박물관도 현재 용산으로 이전)

4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제3장 건국

1. 적의 일체 통치 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 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2.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① 신채호에 의해 작성되었다.
② 중국 충칭에서 발표되었다.
③ 조선 민족 혁명당의 강령이었다.
④ 국민 대표 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

1930년 1월 조소앙, 이동녕, 안창호, 김구(1935.11 한국 국민당으로 이탈) 등 순수한 민족주의자 중심의 정당인 한국독립당(상해)이 창설되었다. 이 당은 정강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소앙이 1935년 7월 단일 연합 전선을 위해 김원봉이 주도한 조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다가, 동년 9월에 김원봉의 노선과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 등을 문제삼아 탈퇴하고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1940.9) 직전 김구 주도하에 3당(한국 국민당-김구, 조선혁명당-지청천, 한국독립당-조소앙) 합당하여 통합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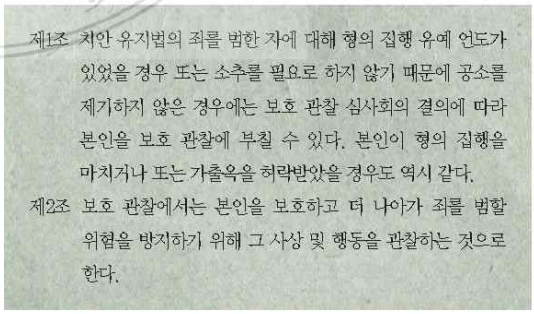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여당인 된 한국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제정.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① 신채호가 작성한 강령은 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1923)이다.

④ 임시정부 초기의 외교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1921~1922년에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정부는 국민대표 회의(1923)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며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에 빠졌다.

⑤ 일제는 항복하기 직전 조선건국동맹(1944)의 여운형(1886~1947)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고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5.8.15.).

42.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제1조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을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 본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

제2조 보호 관찰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①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는 총독부 관리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학생
③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연설하는 여성
④ 가게 앞을 청결히 하지 않아 태형을 당하는 상인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노인

정답: ②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이 시행되던 민족말살기

일제는 만주사변(1931) 이후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를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를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44)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성도 강제 노역조직인 근로보국대(1941)와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③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있었던 토지조사사업(~1918)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던 태형이 무단통치 기간인 1912년 조선 태형령(~1920)이 제정되며 부활했다.

④ 여성 단체들은 신간회의 결성을 계기로 '민족적 처지의 탈피와 봉건 유제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민족 협동 전선체인 근우회를 출범시켰다(1927.5).

⑤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한규설 등은 1922년 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결성하였고, 전국적인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며 본격화되었다.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신간회로부터 진상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③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④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②

*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

일제의 무단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이에 고무된 동경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 독립단(송계백, 최팔용, 백관수 등)의 1919년의 2·8 독립 선언에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탑골, 대한문, 광화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식민통치 기관,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각계각층(지식인과 지도층이 주도했지만 노동자, 기생 등도 참여)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①, ⑤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일본인 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발하였고, 신간회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이를 발표할 민중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다(1929.12).

③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함께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창간되었다.

④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진행되었다(1926년 6.10 만세운동)

44.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제1조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청한다.
⋮
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하로 할 수 없다.
⋮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국민 징용령이 공포되었다.
② 국가 총동원법이 발표되었다.
③ 농촌 진흥 운동이 시작되었다.
④ 미곡 공출 제도가 시행되었다.
⑤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답: ③

* 조선 농지령(1934) 발표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해 1932년부터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전개하고,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을 통해 지주의 소작권 제한을 정부가 관리.규제하며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고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특히 조선 농지령(1934)은 명칭만 거창할 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만 국한시킨 그 적용범위로 볼 때는 이전의 조선소작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군·도에 소작위원회를 두고 마름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가 마름과 같은 소작지 관리인을 둘 경우 지방관서에서 그 인물의 적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한 것, 소작권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작물의 성격에 따라 3년 내지 7년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것 등은 소작쟁의의 주요 원인을 근절시키려 했던 목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령의 실제 집행에서는 여전히 지주를 옹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므로, 이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소작쟁의는 그 뒤로도 수없이 발생하였다.

① 국민 징용령 공포 (1939)
② 국가 총동원법 제정 (1938)
④ 미곡 공출 제도 시행 (1940)
⑤ 학도 지원병 제도 실시 (1943)

4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독립군은 일본군의 맹공을 피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러시아 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계열의 독립군 사이에서 지휘권을 놓고 내분이 일어났다. 이때 러시아 적군(赤軍)은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나)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중국 봉천성 경무처장 위전 사이에 독립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일 한인 단체의 해산과 무기 몰수 그리고 지도자 체포 및 인도 등이었다.

① 조선 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직할 부대로 참의부가 결성되었다.
③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조직되었다.
④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⑤ 북로 군정서군 등 연합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정답: ②

* 1920년대 항일무장 투쟁의 시련기

3.1 운동 이후에도 국내진공 작전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일본 군대, 경찰,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던 중, 1920년 6월, 두만강 북쪽 삼둔자에서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과 교전 후 추격해오는 일본군 대대를 맞아 봉오동에서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50여명 사살),

봉오동 전투(1920.6)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뿌리 뽑기 위해 훈춘 사건(1920.10.2.)을 일으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압박해 왔다. 이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은 청산리에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1200여명 사살, 청산리 대첩).

그러나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제 독립군과 함께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은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 6.).

한편 1922년부터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통합 운동이 일어나 참의부(1923, 임정 직할부대), 정의부(1924), 신민부(1925)의 3부가 조직되었으나,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한 미쓰야 협정(1925)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

①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을 이끈 양세봉(1896~1934)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릉가 전투의 대일 승리를 이끌어냈다.

③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1898~1958)은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조선민족 혁명당을 결성하고,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46. (가)~(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 – 통감부의 방해 등으로 실패하였다.
② (가) – 조만식, 이상재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③ (나) – 공사 노비법의 혁파에 영향을 주었다.
④ (나) –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⑤ (다) –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정답: ②

* 1920년대 사회운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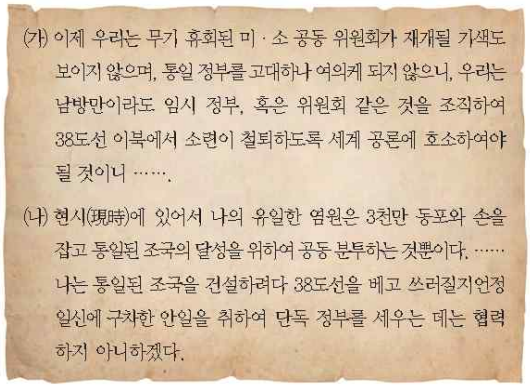
(가)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들어 회사령이 폐지되며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조만식, 이상재 등의 주도로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나) **형평 운동**: 갑오개혁(1894)으로 공.사노비제도가 혁파되며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최하 신분층이었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심해졌다.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였다. 1925년에 본부를 서울로 옮긴 조선 형평사는 1927년에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회원을 크게 늘려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형평사는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파업이나 소작 쟁의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후 형평 운동은 내부에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의 통일성이 상실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3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다) **소년운동**: 일찍이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김기전('개벽' 주필), 방정환(손병희 사위, 아동작가), 이정호(아동작가)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①, ④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대한자강회 등의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통감부가 이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 사장 양기탁을 모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하여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47. (가), (나)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가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

(나) 현시(現時)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 (가) – 국제 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을 시도하였다.
② (가) – 여운형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③ (나) –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④ (나) –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에 가서 김일성 등과 회담하였다.
⑤ (가), (나) –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이승만과 김구

(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
(나)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

이승만(1875~1965): 청년 시절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며 외국 문물을 습득하며 독립협회에서 자주국권, 자유민권을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그는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게 되고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미국에서 학사(조지 워싱턴), 석사(하버드), 박사(프린스턴) 학위를 취득하고 주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초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하였지만 외교를 통한 그의 노선은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1921)과 미주 독립자금 전용 문제로 탄핵당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구미위원부를 통한 외교 활동과 미국 학연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독립운동가였다.

해방 이후에는 좌.우 이념 논쟁 속에서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자유민주주의자로 현실성있는 남한 단독정부론을 주도하였고(1946.6 정읍 발언),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와 자유당 정권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무리한 정권 연장의 독재를 하였고,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4.19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하여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김구(1876~1949):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인 1920년대 후반 백범 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깨고자 한인 애국단(1931)을 조직하여 이봉창(1932.1, 일왕에게 폭탄 투척.실패), 윤봉길(1932.4, 상해 홍코우 공원 의거.성공)의 활약을 이끌어냈고, 중국 국민당 장개석의 후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고(1940.9), 해방 직전 정진군을 이끌고 국내로 진공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항복으로 무산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실시에 대해 이승만과 함께 반대하였으나, 이승만의 단독정부 추진과 유엔의 결정에 의한 남한만의 총선을 통한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북의 김일성 등과 남북협상(1948.4)을 하러 평양에 갔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피살되었다(1949.6)

② 중도 우파의 김규식(1881~1950)이 중도 좌파의 여운형(1886~1947)과 함께 미군정의 지원 하에 1946년 7월부터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였으나, 트루먼 독트린(1947.3)과 여운형 암살(1947.7)로 인해 동력을 잃고 실패하였다

48.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 ⋮
>
>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②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③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④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였다.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답: ⑤

*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제헌의회(1948.5~1950.5)

1948년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2개 선거구 불능)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의 원칙에 따라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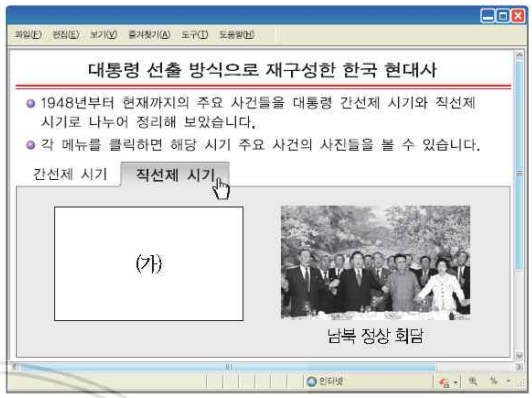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15).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1948.9), 반민특위(1949. 1~8)가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1950.3~1957)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④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기관으로, 토지 및 재산(공장)을 관리하던 기관인 신한공사(1946.10 설립)의 자산을, 농지는 농지개혁법(1949.6)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1949.12)으로 민간인 연고자에 분배하였다. 그러나 불하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정격유착이 있었다.

⑤ 3대 국회 때(1954.5~1958.5)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이 부결 후 사사오입의 회괴한 논리로 다시 통과되었다(1954.11).

49.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서울 올림픽 대회

ㄴ.

인천 상륙 작전

ㄷ.

7·4 남북 공동 성명

ㄹ.

부·마 민주 항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대통령 직선제 적용 시기의 연대기

제헌헌법(1948~1952): 대통령 간선제(국회)
1.2차개헌(1952~1960): 대통령 직선제(국민)
3.4차개헌(1960~1961): 의원내각제
5.6차개헌(1963~1972): 대통령 직선제(국민)
7.8차개헌(1972~1988): 대통령 간선제
9차개헌(1988~현재): 대통령 직선제(국민)

㉠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첫 집권한 노태우 정부(1988~1993)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후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저지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여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부마 항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50.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나)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감행하여 자유 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현정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이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다)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 독립을 부르짖던 그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있는 것은 구국 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 구국 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① (가)-(나)-(다) ② (가)-(다)-(나) ③ (나)-(가)-(다)
④ (나)-(다)-(가) ⑤ (다)-(나)-(가)

정답: ④

* 민주화 운동 관련 선언문

(가) **6월 민주 항쟁 선언**(1987):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나) **3선 개헌 반대 선언**(1969): 1967년 경제 발전의 성과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다시 선출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이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반공 태세 강화와 국가 발전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3선 개헌을 국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켰다(1969).

(다) **3.1 구국 선언**(1976):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안병무 등 재야 정치인, 카톨릭 신부, 기독교 목사, 대학 교수 등이 발표한 유신 체제하 최대의 반정부 선언.